

3500만명이 쓰는 스마트폰의 '어두운 그림자'

절도범 표적되고 폭력 도구로 전략

카카오톡 왕따 당하고 성범죄 이용되기도

스마트폰이 범죄의 대상이 되거나 폭력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등 관련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흉친 뒤 팔아 유튜브로 쓰는가 하면,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스마트폰이 새로운 '폭력의 도구'로 악용되고 있다.

스마트폰으로 '왕따'와 사기를 당하는가 하면 성범죄에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행위도 늘고 있다. 스마트폰 금단 현상, 소통의 단절도 3500만명이 넘게 쓰는 스마트폰의 어두운 그림자다.

◇순쉬운 스마트폰 범죄 = 고가의 스마트폰은 절도범이 노리는 표적이 된 지 오래다. 전문 절도범 뿐 아니라 10대 청소년도 의외의 침입자가 늘고 있다.

신고된 스마트폰 등을 사들여 중국 등 해외로 밀수출해 이득을 챙긴 일당도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서부경찰에 최근 구속된 엄모(23)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2월까지 전국적 조직망을 갖추고 스마트폰 2000여 대, 5억원 상당의 휴대폰을 사들인 뒤 중국으로 밀수출해 이득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스마트폰 범죄의 진화 = 스마트폰은 범죄도 진화시켰다. 대표적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카카오 스토리가 널리 이용되면서 '카카(카카오 왕따)'는 새로운 따돌림 현상이 생겨났다.

스마트폰을 이용해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과 '카카오스토리'와 같은 SNS 상에서 더 많은 교류를 나누는 과정에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지 못하는 같은 반 학생은 속칭 '왕따'다. 스마트폰이 없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무시의 대상이다. 광주지역 중학교 교사 류모(32)씨는 "스마트폰이 없다는 것만으로 소외당한다고 느끼는 학생도 많다"고 말했다.

◇의명 성범죄, 금융 범죄도 = 상대 방을 밝히지 않고 채팅을 할 수 있

록 하는 기능도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지난해 10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랜덤 채팅'을 통해 알게 된 A(13)양을 협박, 성폭행했던 이모(16)군은 당시 광주 한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다. 지난 6일에는 역시 랜덤 채팅을 통해 만난 A(15)양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전모(39)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문자로 해킹 사이트 링크를 보내고 여기에 접속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빼돌리는 '스미싱'과 '파밍'과 같은 금융범죄도 스마트폰의 발달과 함께 확산하고 있다.

◇의명 성범죄, 금융 범죄도 = 상대 방을 밝히지 않고 채팅을 할 수 있

◇의명 성범죄, 금융 범죄도 = 상대 방을 밝히지 않고 채팅을 할 수 있

◇의명 성범죄, 금융 범죄도 = 상대 방을 밝히지 않고 채팅을 할 수 있

◇의명 성범죄, 금융 범죄도 = 상대 방을 밝히지 않고 채팅을 할 수 있



외국인 유학생 건강검진 전남대에 재학중인 외국인 유학생들이 7일 광주시 북구보건소에서 실시하는 무료건강검진을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최헌배기자 choi@kwangju.co.kr

술냄새 운전자 등친 택시기사

사고나자 회사간부와 공모, 약점 잡아 330만원 뜯어

교통사고가 일어난 뒤 상대방 운전자를 협박, 금품을 뜯은 택시 기사와 회사 간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만취한 손님을 모범로 끌고가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택시 기사

가나 부당요금을 받는다는 시민 불편 전화도 끊이지 않는다. '내중교통'이라는 택시가 무섭다는 말이 사라지지 않는다.

광주남부경찰은 7일 접촉 사고가 난 뒤 상대 운전자에게 "음주운전 사

실을 신고하겠다"며 협박,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공갈 등)로 택시기사 김모(36)씨와 김씨 회사 영업부장 강모(46)씨를 붙잡아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 등은 지난 2월 26일 새벽 4시경 광주시 광산구 운남

동 한 아파트 단지 앞 도로에서 정모(33)씨 승용차와 부딪히는 접촉 사고가 발생한 뒤 "술을 마시고 운전한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 정씨에게 330만원을 받아 똑같이 나눠 가진 혐의다.

경찰에서 이들은 "술 냄새가 난다"면서 면허취소·보통 미적용 등을 우려한 정씨를 몰아세워 돈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정씨의 신고로 이들을 검거한 뒤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사건번호	물건번호	소재지 및 면적 [㎡]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비고
2012타경 12536	2	무안군 망운면 옥서리 772-12 2990㎡ [분묘소재로분묘기전성립여지있음]	전	82,171,000	82,171,000	일괄매각, 농지취득자격증명요
2012타경 12970	1	신안군 지문면 유리리 92-1 516㎡	전	4,651,700	4,651,700	일괄매각, 농지취득자격증명요
	2	동소 149-32 488㎡	전	4,651,700	4,651,700	일괄매각, 농지취득자격증명요
2012타경 13195	1	동소 777 169㎡	대	7,120,000	7,120,000	일괄매각, 매각외채시외건물및비닐하우스있음
	2	동소 128-2 823㎡	대	7,120,000	7,120,000	일괄매각, 매각외채시외건물및비닐하우스있음
	3	동소 131-1 853㎡ [분묘소재로분묘기전성립여지있음]	전	10,961,800	10,961,800	일괄매각, 농지취득자격증명요
2012타경 13621	1	무안군 청계면 청천리 410-2 350㎡ [공유차량채임차있음]	대	3,500,000	3,500,000	임차인있음, 채시외건물비매각
2012타경 13683	1	영광군 군서면 활곡리 산70-2 9917㎡	임야	33,717,800	33,717,8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2012타경 13683	1	함평군 해보면 상곡리 1062-12 3447㎡	답	31,367,700	31,367,7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매각물건

2012타경 9783 1 영암군 서흥면 금리리 산81 18947㎡ [공유차량채임차있음] 4,547,280 4,547,280

사건번호	물건번호	소재지 및 면적 [㎡]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비고
2012타경 11311	1	목포시 호남동 90 165㎡	대	394,671,440	394,671,440	일괄매각, 임차인있음, 단지번호[91]지상건물과실채환등의건물로내부공공시설등사용
2012타경 12475	1	무안군 현경면 평산리511-4 322㎡ [수목포복]	전	5,763,000	5,763,000	분묘소재로분묘기전성립여지있음
2012타경 12659	1	목포시 죽동 95-27 28.8㎡	대	45,444,480	45,444,480	일괄매각, 채시외건물포함, 임차인있음
2012타경 13195	1	무안군 청계면 청천리 436 1484㎡	전	29,741,500	29,741,500	일괄매각, 농지취득자격증명요 [목록1]

매각물건

2012타경 13195 1 동소 436-1 281㎡ 29,741,500 29,741,500

檢, 승부조작 강동희 감독 영장

프로농구 경기 승부 조작을 수사 중인 의정부지검 형사5부(유혁 부장 검사)는 7일 원주 동부 강동희(47·사진) 감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돈을 받지 않았다. (최씨는) 10년 전부터 안 후배인데 급금관계는 있었다”고 밝혔다.

강 감독 소환과 함께 검찰 수사도 활기를 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승부조작 대가로 강 감독에게 돈을 준 혐의로 최씨를 구속하고 지난 6일 같은 혐의로 조씨를 구속했다.

최씨와 조씨에게 돈을 대 준 1명도 수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프로농구 승부조작과 관련한 수사 대상은 총 4명으로 늘었다.

'미리엘' 신부처럼 학생 용서한 센터장

다니던 지역아동센터서 컴퓨터·모니터 훔친 10대 6명 선처 호소

“둘러봤었는데, 처벌할 필요 없습니다.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자신들이 수년 동안 다니던 지역아동센터에서 컴퓨터를 훔친 10대 6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훔친 컴퓨터를 판 돈 일부는 PC방 게임에 썼다.

등을 훔친 혐의(특수절도 등)로 김모(16)군 등 6명을 입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일 오후 5시에 지역아동센터에서 컴퓨터 본체 3대와 모니터 1대 등 시가 125만 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다.

이들은 5년 전부터 학교 수업이 끝난 뒤 주위의 아동센터를 찾아 공부방 등을 이용해왔다. 훔친 컴퓨터를 판 돈 일부는 PC방 게임에 썼다.

영화 '래미제라블'에서 은그릇을 훔친 장발장을 용서하고 촛대까지 내줘 훗날 큰 사랑을 펼칠 수 있도록 해 준 '미리엘' 신부가 떠오르는 대목이다.

광주서부경찰은 7일 광주시 서구 쌍촌동 주모(여·51)씨의 지역아동센터에서 컴퓨터와 모니터

하청업체에 허위계산서·리베이트 대납

금호석화 임원 2명 영장

대기업인 금호석유화학의 간부들이 하청업체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리베이트 대납시키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이 적발됐다.

상무 등이 이런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A상무 등은 리베이트를 약속해 공사를 수수하고 하청업체에 착공공사를 하도급해주는 조건으로 5억50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대납시킨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도 받고 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가짜 세금계산서 발행 등 불법행위에 연루된 금호석유화학과 협력업체 관계자 등 23명을 입건하고 이종 금호석유화학 A(51) 상무 등 간부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금호석화는 2009년 7월부터 2010년 2월까지 12개 하청업체를 상대로 58회에 걸쳐 모두 115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매출 부풀리기 차원에서 A 상무 등이 이런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A상무 등은 리베이트를 약속해 공사를 수수하고 하청업체에 착공공사를 하도급해주는 조건으로 5억50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대납시킨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도 받고 있다.

금호석유화학 측은 “해당 임원 단독의 판단과 지시에 따른 과실로 금호석화도 사실상 피해자”라면서 “협력업체 제보 및 내부감사를 통해 내부적으로 징계했고 추후 조사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원침



법원, 심형래 파산 선고

"재산없으면 채무 면책"

서울중앙지법 파산1단독 원용일 판사는 7일 코미디언 출신 영화감독 심형래(55)씨에게 파산을 선고했다.

앞으로 채권자들에게 돌려줄 재산이 전혀 없는 것으로 밝혀지면 심씨는 빚을 탕감할 수 있게 된다. 법원 관계자는 “파산 선고와 동시에 파산 관재인이 선임됐다”며 “향후 관재인을 통해 환가할 재산이 있는지 면책 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영화 제작 등에 많은 비용을 투자하고서 흥행 실패로 재정난을 겪어 온 것으로 알려진 심씨는 지난 1월 30일 서울중앙지법에 개인 파산을 신청했다.

TV 배달하러 갔다 다이아몬드 슬쩍

○대형 마트 전자제품 배송팀 직원이 전자제품을 배달하러 가 주인이 없는 사이 금품을 슬쩍했다가 경찰서행

○7일 광주남부경찰에 따르면 강모(28)씨는 지난 1월 21일 오전 9시 30분경 광주시 남구 진월동 이모(여·47)씨 집에 TV를 배달하러 갔다가 연방 서랍장 위에 놓여 있던 100만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반지 1개를 훔쳐 다는 것.

○강씨는 처음에는 혐의를 전변 부인하다가 거짓말 탐지기의 거짓 반을 결과로 토대로 집중 추궁하는 경찰에 범죄 사실을 실토.

○대형 마트 전자제품 배송팀 직원이 전자제품을 배달하러 가 주인이 없는 사이 금품을 슬쩍했다가 경찰서행

○7일 광주남부경찰에 따르면 강모(28)씨는 지난 1월 21일 오전 9시 30분경 광주시 남구 진월동 이모(여·47)씨 집에 TV를 배달하러 갔다가 연방 서랍장 위에 놓여 있던 100만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반지 1개를 훔쳐 다는 것.

○강씨는 처음에는 혐의를 전변 부인하다가 거짓말 탐지기의 거짓 반을 결과로 토대로 집중 추궁하는 경찰에 범죄 사실을 실토.

○대형 마트 전자제품 배송팀 직원이 전자제품을 배달하러 가 주인이 없는 사이 금품을 슬쩍했다가 경찰서행

○7일 광주남부경찰에 따르면 강모(28)씨는 지난 1월 21일 오전 9시 30분경 광주시 남구 진월동 이모(여·47)씨 집에 TV를 배달하러 갔다가 연방 서랍장 위에 놓여 있던 100만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반지 1개를 훔쳐 다는 것.

○강씨는 처음에는 혐의를 전변 부인하다가 거짓말 탐지기의 거짓 반을 결과로 토대로 집중 추궁하는 경찰에 범죄 사실을 실토.

○대형 마트 전자제품 배송팀 직원이 전자제품을 배달하러 가 주인이 없는 사이 금품을 슬쩍했다가 경찰서행

○7일 광주남부경찰에 따르면 강모(28)씨는 지난 1월 21일 오전 9시 30분경 광주시 남구 진월동 이모(여·47)씨 집에 TV를 배달하러 갔다가 연방 서랍장 위에 놓여 있던 100만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반지 1개를 훔쳐 다는 것.

○강씨는 처음에는 혐의를 전변 부인하다가 거짓말 탐지기의 거짓 반을 결과로 토대로 집중 추궁하는 경찰에 범죄 사실을 실토.